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홍선우*, 김지수**, 현혜진***

대전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강원대학교***

Sun-Woo Hong(swhong@dju.ac.kr)*, Ji-Soo Kim(jskim@gachon.ac.kr)**,
Hye-Jin Hyun(hjhyun@kangwon.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미래 의료현장 전문가로서의 인간 존중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하고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인천, 강원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440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의무적 측면보다 권리적 측면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였고($p < .001$),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인권의식을 7.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심리적환경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중심어 : | 인권의식 | 양육태도 | 간호대학생 | 자아존중감 | 심리적 환경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nursing students, and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for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440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y in Incheon and Kangwon province. The score for right consciousness was much higher than duty consciousness inherent in human rights. The predicting factor for human rights was mother's rearing attitude in terms of autonomy and this factor explained 7.6% of human rights for nursing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human rights for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age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were related to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esteem,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 keyword : | Human Rights | Parenting | Nursing Students | Self-esteem | Home Environment |

I. 서론

인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권

리를 말한다.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행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된

접수번호 : #101202-001
접수일자 : 2010년 1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3월 09일
교신저자 : 김지수, e-mail : jskim@gachon.ac.kr

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선포된 총 30조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문 중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권을 기초적이고 중요한 우선적 인권으로 규명하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에 포함하고 있다[1].

한편 전인적인 개별화된 간호를 지향하는 간호전문직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 보다도 대상자의 존엄성과 개성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하고 생명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자 국제 간호협회에서는 1953년에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공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1972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해 왔다[2].

인간을 총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은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이념과 신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간호는 인간의 기초 권리 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하고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명의료 기술의 발전과 까다로운 의료기술의 변화로 인해 점점 복잡해지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한 간호전문직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3].

따라서 간호학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임상에서의 윤리적 갈등 사항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연구로서 임상 간호사에 국한된 연구가 많았다[4-7]. 그리고 간호 대학생의 가치관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 등이 소수 있었으나[8][9], 미래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개인의 가치는 전문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애를 기초로 하여 인간을 돕는 간호사에게는 무엇보다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10]. 특히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에서부터 대상자를 직접 만나고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타학문과 비교해 더 요구된다. 그래서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의 기본이념을 배양하고 전문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가 없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연구를 통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인권에 대해서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11], 심리적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인권교육의 경험이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각,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옹호적인 행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봉규의 연구[14]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환경적 특성이 또한 인권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능력, 학업성취, 사회적 능력, 자아 존중감 발달과 도덕성 발달 등의 다양한 측면의 인간발달과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명, 권리, 존엄성 존중을 기초 가치로 삼고 있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고찰 상에서 영향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소로 밝혀진 자아 존중감과 가정환경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장차 전문직 간호사로 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함양 및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정도가 어

며한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인권의식을 분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을 조사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 특성 14문항,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 부와 모의 양육태도 각 33문항, 자아 존중감 10문항, 가정의 심리적 환경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 인권의식 측정도구

간호 대학생의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박봉규[14]가 개발한 인권의식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권의식 진단척도는 평등, 존중, 자유에 대해 각 권리와 의무성 인식을 묻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의식의 권리적 측면은 스스로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권리와 자신의 인권침해에 저항할 권리를 내포하고 의무적 측면은 타인의 인권신장을 보호할 의무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내포한다. Likert 5점 평정척도로서 1점에서 5점까지 문항 내용이 대상자의 생각과 태도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높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박봉규[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75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881$ 이었다.

2.2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본 도구는 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된 것으로[14] 수용-거부적 태도, 자율-통제적 태도, 성취압력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영역별 각 11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평정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을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과잉기대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봉규[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85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46$ 이었다.

2.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17]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 가치, 존경, 자신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4점을 부여할 수 있는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이[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7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822$ 이었다.

2.4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정도구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정도구[18]는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 등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에서 3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정환경을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친애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인숙[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70\sim 0.8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765$ 이었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으로 인천시와 강원도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483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483부를 배부하여 470부가 회수(회수율 97.3%)되었으나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와 불완전한 응답을 한 30부를 제외하고 440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권의식,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환경 및 인권의식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확인하였다. 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대상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인권의식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2.7%로 월등히 많았고 평균 연령은 20.7세로 20-24세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28.6%, 2학년이 28.0%를 차지했다. 가족 수는 4명이 55.0%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고 출생순위로는 51.8%가 첫째였다. 부모님 관련 특성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은 경우가 50.5%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이 59.3%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다. 부모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34.9%가 사무직이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46.3%가 가정주부라고 응답했다. 부모와의 대

화 정도는 67.6%가 많은 편이라고 했으며 부모가 타인에 대해 배려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5.4%였다. 친한 친구로 3-4명이 있다고 한 경우가 40.5%가 가장 많았고 성적이 중간의 경우라고 응답한 학생이 40.7%로 나타났다[표 1].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환경, 인권의식을 확인한 결과, 연령과 학년, 가족 수,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부모와의 대화 정도, 타인을 배려하라는 부모의 말씀 정도와 친구 수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즉, 연령의 경우 20세 이하보다는 20세 이상인 경우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3,4학년보다는 1학년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에서 보다는 고졸인 경우에서 각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 하층 집단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부모와의 대화가 적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는 많다고 한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타인에 대해 배려하라는 부모의 말이 드물거나 보통인 집단보다는 자주 듣는 집단에서 아버지에 대한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친한 친구 수가 5명 이상인 경우가 0-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연령, 부모와의 대화, 타인을 배려하라는 부모 말씀, 친구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심리적 환경에서는 연령, 경제 수준, 부모와의 대화, 타인을 배려하라는 부모 말씀, 친구 수,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인권의식에서는 연령별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환경 및 인권의식 (N=440)

변수		n (%)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환경		인권의식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성별	남	32 (7.3)	107.6±10.4	.290	109.7±10.7	-1.416	32.1±5.4	1.096	104.4±6.0	-.724	91.1±11.2	-1.188
	여	408 (92.7)	107.6±10.6		112.5±10.8		31.1±4.5		105.3±7.1		91.4±7.7	
연령 (세)	<20 ^a	147 (33.4)	104.1±12.1	6.332** (b,c>a)	108.1±12.9	12.627*** (b,c>a)	30.0±4.9	4.595* (b>a)	103.3±7.4	10.573*** (b,c>a)	90.9±6.9	3.660*
	20-24 ^b	271 (61.6)	108.3±10.1		114.8±9.7		31.8±4.4		106.4±6.7		92.8±6.4	
	>25 ^c	22 (5.0)	112.0±8.8		116.2±9.4		31.9±4.7		110.7±4.1		95.0±6.6	
	M±SD = 20.7±2.1											
학년	1 ^a	126 (28.6)	105.4±12.7	2.256	109.2±12.5	5.249** (b>a)	30.5±5.0	2.059	103.9±7.9	2.354	91.0±7.4	.564
	2	123 (28.0)	107.3±9.3		112.6±9.9		31.0±4.4		105.5±7.0		91.0±7.2	
	3 ^b	93 (21.1)	107.2±10.0		113.9±9.5		31.9±4.6		106.3±6.6		92.2±8.1	
	4 ^b	98 (22.3)	109.0±9.3		114.1±9.7		31.7±4.4		105.8±6.2		91.5±9.4	
가족 수	1-3	36 (8.2)	107.6±9.8	.461	113.4±9.7	3.469* (a>b)	31.0±4.8	.108	105.3±8.1	.081	91.0±9.3	.054
	4 ^a	242 (55.0)	107.5±10.7		113.3±10.7		31.3±4.6		105.2±7.2		91.3±7.9	
	>5 ^b	162 (36.8)	106.5±10.5		110.5±10.9		31.1±4.6		105.4±6.6		91.5±7.9	
출생 순위	독자	23 (5.3)	109.8±8.7	1.160	114.0±10.7	.662	30.4±5.0	1.588	106.6±7.4	.732	91.6±6.2	1.018
	첫째	227 (51.8)	107.5±11.5		112.3±11.2		30.9±4.7		105.4±7.1		91.8±6.7	
	중간	71 (16.2)	106.9±8.7		110.8±10.4		32.0±4.3		105.6±6.6		91.6±8.4	
	막내	117 (26.7)	105.9±10.0		112.5±10.1		31.5±4.4		104.6±7.0		90.2±10.1	
교육수준(아버지)	<중졸 ^a	39 (8.9)	101.5±11.5	6.681** (b>a)	107.2±10.9	5.352** (b>a)	30.0±4.9	2.107	103.1±6.4	2.006	89.4±10.4	1.947
	고졸 ^b	179 (40.7)	107.0±10.0		112.2±10.4		31.6±4.3		105.4±7.0		92.0±7.9	
	>대졸	222 (50.5)	108.2±10.5		113.2±10.8		31.1±4.7		105.5±7.1		91.1±7.5	
교육수준(어머니)	<중졸 ^a	47 (10.7)	105.3±10.8	.767	108.1±9.8	4.129* (b>a)	31.0±5.2	.506	103.6±6.1	2.363	90.9±9.8	.636
	고졸 ^b	261 (59.3)	107.3±10.4		112.9±10.2		31.4±4.4		105.1±7.2		91.7±7.7	
	>대졸	132 (30.0)	107.3±10.8		112.4±11.8		30.9±4.7		106.1±7.0		90.8±7.8	

경제수준	하 ^a	49 (11.1)	103.8±8.8	8.778*** (c>a,b)	108.7±9.3	8.446*** (c>a,b)	30.4±4.6	1.866	105.4±6.6	4.710** (c>b)	91.1±7.5	.321
	중 ^b	327 (74.3)	106.7±10.6		111.9±10.8		31.3±4.6		104.8±6.9		91.5±8.0	
	상 ^c	64 (14.5)	111.6±10.2		116.7±10.2		32.0±4.6		107.7±7.8		90.7±8.6	
직업 (아버지)	전문직/관리직	52 (11.8)	107.7±12.2	.689	113.3±12.6	1.410	31.3±4.4	.108	106.8±6.6	.735	91.2±7.9	1.137
	사무직	153 (34.9)	107.9±10.9		113.1±10.3		31.3±5.0		105.0±7.8		91.4±7.6	
	판매/서비스	112 (25.5)	106.4±9.1		112.0±11.0		31.3±4.5		105.1±6.1		92.5±7.0	
	생산직	75 (17.1)	105.8±12.1		109.8±11.3		31.2±4.6		105.2±7.0		90.8±9.1	
	기타/ 무직	47 (10.7)	107.5±8.3		112.9±8.2		30.9±4.1		104.7±7.4		89.8±9.5	
직업(어머니)	전문직/관리	32 (7.4)	106.5±14.5	.508	113.7±12.4	.593	30.5±5.3	1.537	106.6±8.4	1.248	91.3±6.1	1.652
	사무직	54 (12.4)	107.7±10.9		110.6±12.8		31.1±4.1		106.6±7.3		90.4±9.1	
	판매/서비스	124 (28.6)	106.6±10.2		112.9±10.5		31.8±4.3		105.4±7.1		92.9±5.9	
	생산직	23 (5.3)	105.2±12.2		111.9±11.2		29.6±5.1		104.3±6.3		90.6±5.5	
	기타/ 주부	201 (46.3)	107.7±9.7		112.1±10.1		31.3±4.7		104.7±6.7		90.7±9.2	
부모와의 대화 정도	적다 ^a	34 (7.7)	102.1±12.3	13.921*** (c>a,b)	108.4±12.7	12.145*** (c>a,b)	30.0±4.9	5.376** (c>b)	100.4±7.9	17.133** *	90.7±7.7	.177
	보통 ^b	108 (24.5)	103.8±9.5		108.8±10.9		30.2±4.8		103.5±6.2	(c>a,b)	91.2±7.2	
	많다 ^c	298 (67.7)	108.9±10.3		113.9±10.1		31.7±4.4		106.5±6.9		91.5±8.3	
타인을 배려하 라는 부모말씀	드물다 ^a	33 (7.5)	101.9±8.6	14.390*** (c>a,b)	109.2±9.0	4.251*	29.4±4.4	5.164** (c>a)	100.8±6.7	15.352** *	91.0±6.9	.060
	보통이다 ^b	75 (17.1)	102.8±11.0		109.8±10.4		30.3±4.8		102.9±5.7	(c>a,b)	91.5±8.3	
	자주 듣는다 ^c	331 (75.4)	108.6±10.2		113.1±10.9		31.6±4.5		106.3±7.1		91.3±8.0	
친한 친구 수	0-2 ^a	107 (24.3)	104.8±10.5	5.973** (c>a)	109.9±10.4	5.186** (c>a)	30.1±4.8	9.590*** (c>a,b)	103.2±7.3	8.623*** (c>a)	90.7±8.6	.560
	3-4 ^b	178 (40.5)	106.7±10.4		112.0±10.6		30.8±4.6		105.2±6.9		91.7±7.7	
	>5 ^c	155 (35.2)	109.2±10.5		114.1±11.0		32.4±4.3		106.8±6.7		91.5±7.9	
성적	하 ^a	102 (25.2)	106.2±9.7	.882	111.7±10.3	.258	30.5±5.0	2.613	103.8±7.1	4.311* (b>a)	91.4±8.0	.037
	중	165 (40.7)	106.4±10.6		111.8±10.3		30.8±4.6		104.9±7.0		91.3±8.2	
	상 ^b	138 (34.1)	107.8±11.5		112.6±12.2		31.8±4.3		106.4±7.1		91.1±8.3	

* $p<0.05$, ** $p<0.01$, *** $p<0.001$

2.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간호대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지각된 양육태도는 평균 107.1이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112.2로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은 측정 가능한 범위 10-40 중 평균 31.2였으며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48-144 중 105.3, 그리고 인권의식은 20-100 중 91.4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에서 권리적 측면의 인권의식이 의무적 측면보다 높았다[표 2].

표 2. 양육태도, 자아 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인권의식

변수	M±SD	범위	측정 값
아버지의 양육태도	107.1±10.6	33-165	60-129
수용-거부	36.4±7.8	11-55	15-53
자율-통제	46.9±6.8	11-55	12-55
성취압력	23.8±8.6	11-55	11-53
어머니의 양육태도	112.2±10.9	33-165	72-139
수용-거부	40.4±8.1	11-55	11-55
자율-통제	47.3±7.2	11-55	19-55
성취압력	24.6±9.4	11-55	11-55
자아 존중감	31.2±4.6	10-40	18-40
가정의 심리적 환경	105.3±7.0	48-144	81-126
성취-비성취	21.5±3.8	12-36	12-33
자율-타율	30.0±3.7	12-36	17-36
개방-폐쇄	28.6±3.4	12-36	15-35
친애-거부	25.2±2.4	12-36	18-32
인권의식	91.4±8.0	20-100	53-100
권리적 측면	47.3±4.7	10-50	10-50
의무적 측면	44.1±4.9	10-50	25-50

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수용-거부에 대한 양육태도, 자율-통제에 대한 양육태도와 인권의식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성취기대에 대한 양육태도와 인권의식과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인권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인권의식 r(p)
아버지의 양육태도(수용-거부)	.119(.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자율-통제)	.209(<.001)
아버지의 양육태도(성취압력)	-.126(<.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수용-거부)	.171(<.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자율-통제)	.236(<.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성취압력)	-.125(.004)
자아 존중감	.160(<.001)
가정의 심리적 환경	.170(<.001)

4.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8개의 변수[표 3]등의 총 9개의 변수를 입력 방식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자율-통제에 대한 양육태도가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인권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인권의식을 7.6%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의식의 의무적 측면에서도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지수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E	β	t	Adj R ²	F
인권의식	상수	72.631	7.056	10.294	.076	4.035***
	어머니의 양육태도(자율-통제)	.197	.096	.177		
권리적 측면	상수	31.683	4.142	7.650	.077	4.473***
	어머니의 양육태도(성취압력)	.082	.042	.164		
의무적 측면	상수	40.948	4.432	9.240	.045	2.522**
	어머니의 양육태도(자율-통제)	.107	.060	.155		

† p<0.1, * p<0.05, ** p<0.01, *** p<0.001

IV. 논의 및 결론

간호의 본질은 인류애를 기초로 하여 인간을 돕는 것이며 대상자와의 직접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간호사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 즉 인권의식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고등학생의 인권의식[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인권태도를 측정한 연구[19]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하더라도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 인권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의식에서도 권리적 측면의 인권의식이 47.3점으로 의무적 측면의 44.1점 보다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타인의 인권신장을 보호할 의무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보다는 스스로를 인권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권리와 자신의 인권침해에 저항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로 측정된 고등학생의 인권의식[14]에서도 권리성이 45.2, 의무성이 42.0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중심적이며 권리중심적인 인권의식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경향은 고등학생과 간호대학생이 모두 유사하다.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전문직의 특성을 볼 때 타인과 맺는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스스로를 인권의 주체로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더 앞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간호사윤리강령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생명의 존중과 인간의 기본권리 존중이다. 따라서 인권을 옹호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확고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내재적 의무성이 더 함양될 필요가 있다. 간호사로서 전문적 역할의 실천은 내재된 가치관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미

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문직 간호사로 행하는 간호행위가 직결되기 때문에[9], 간호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가치관 함양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지식과 기술 위주로 편제되어 있어 인권교육이나 경험, 참여 등에 대한 기회가 전혀 없다. 대상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실천역량을 가지고 있는 예비 전문직 간호사에게는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의식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대체적으로 인권의식이 신장되는 경향과 일치한다[20]. 하지만 성별, 출생순위, 경제수준, 경험적 요소에 따라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1][12][14][19]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적 특성 변수에 따라 인권의식에 차이가 없었다. 위 선행연구들이 고등학생이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고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성향을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통제에 대한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자아존중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등은 인권의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2]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되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경희와 강병철[19]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유의한 영향요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치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도 인권의식에는 유의한 영향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고 다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생의 초기부터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역할과 태도, 가치 등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심리문제와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어[21-24], 양육태도가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육태도가 인권의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는 연구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인권의식과 인권의식의 의무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인성발달에 있어 영향요소이며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해 성인기 발달에서도 반복되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Scharff[25]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인권의식을 7.6%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대상자와 관련변수들을 추가한 포괄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는 건강 인권옹호자로서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보다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생명권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함양하여 전문간호사로서의 자질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의식보다는 자기중심적 권리주장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에게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에게 함양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인권의식의 의무성에도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영향요소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 [2] 하영수, 박경순, 박금자, 배경의, 신동수, 신상춘, 이옥자, 이자형, 정주연, 최의숙, 한영란, *간호학 개론*, 신광출판사, 2008.
- [3] 유인철,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4] 김미정, 김명희, “임상 간호사의 도덕성 발달과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5권, 제2호, pp.337-353, 1998.
- [5] 김용순, “윤리교육이 간호사의 도덕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제1호, pp.183-193, 2000.
- [6] 성미혜,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3호, pp.551-562, 1999.
- [7] 하주영, 김동희, 황선경,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의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16-224, 2009.
- [8] 안은경, 구옥희, 김태숙,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행정학회지*, 제4권, 제1호, pp.19-31, 1998.
- [9] 한성숙, 안성희, “간호학생의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간호행정학회지*, 제1권, 제1호, pp.5-21, 1995.
- [10] J. McHale and A. Gallagher, *Nursing and human right*. Butterworth-Heinemann, 2003.
- [11] J. Diaz-Veizades, K. F. Widaman, T. D. Little, and K. W. Gibbs,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human rights attitudes,” *J. of Social Psychology*, Vol.135, No.3, pp.313-328, 1995.
- [12] 김혜정,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이승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4] 박봉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문경주, 오경자,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1권, 제1호, pp.29-43, 2002.

[16] J. Y. Tein, M. W. Roosa, and M. Michaels,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 of Marriage and Family*, Vol.56, No.3, pp.341-355, 1994.

[17] 김영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8] 남인숙, *초등학생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정서기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9] 하경희, 강병철,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2호, pp.183-202, 2009.

[20] 문미희, "중,고등학생의 도덕판단력과 인권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고화 발달국면의 조절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437-458, 2007.

[21] D. Baumri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 of Early Adolescence*, Vol.11, No.1, pp.56-95, 1991.

[22] H. Richter-Appelt, B. G. Schimmeimann, and J. Tiefensee, "Questionnaire on parental attitudes and rearing practices," *Psychotherapie Psychosomatik Medizinische Psychologie*, Vol.54, No.1, pp.23-33, 2004.

[23] J. J. Zimmermann, M. R. Eisemann, and M. P. Fleck, "Is parental rearing an associated factor of quality of life in adulthood?" *Quality of Life Research*, Vol.17, No.2, pp.249-255, 2008.

[24] R. D. Conger, K. J. Conger, and M. J. Martin,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 of Marriage and Family*, Vol.72, No.3, pp.685-704, 2010.

[25] D. E. Scharff,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An introduction*, Aronson, 1996.

저 자 소 개

홍 선 우 (Sun-Woo Hong)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7년 8월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Social Policy and Planning(이학석사)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현재 :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지역사회간호, 사례관리

김 지 수 (Ji-Soo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현재 :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유아 성장발달, 아동간호

현 혜 진 (Hye-Jin Hyun)

정회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건강행위, 지역사회간호